

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

□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(월) ‘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’를 개최*했다.

* 참석기관 : 행안·고용·국토·산업·과기정통·산업·환경부, 소방청, 경기도, 화성시

○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('24.6.)가 발생함에 따라, 정부는 민·관 합동 ‘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’를 구성하고, 37개 개선과제를 마련('24.9.)한 바 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 했다.

○ 올해 상반기까지 ▲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▲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.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, R&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지난 19일(목)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.

□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“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	책임자	과 장	정승진 (044-205-6110)
	사회재난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용현 (044-205-6115)